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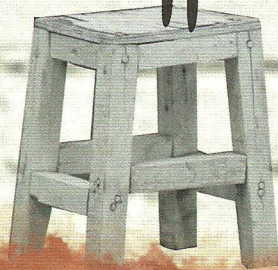


임원미의

# 육체

the Body

2010 연분홍





**육체** 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어려운 생각에 묶여 있는 나의 육체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육체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육체는 저 스스로 서서히 움직이며  
감각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육체의 감각은 투박하고 거칠지 모르지만,  
오묘하게 솔직합니다.

춤이 계속되면서 몸은 뜨거운 열기를 토해냈고,  
거기에 기억의 파편들이 알아볼 수 없게 뒤엉켜  
더 격렬한 몸짓-감각을 뱉어냅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기억이 저장됩니다.

찰나일지언정 날것 그대로인 육체가 토해내는  
새로운 몸짓-감각과 더불어  
더 자유로운 몸의 향연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몸 그 자체였던 춤꾼들과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무 Choreographer**  
입현미

**출연 Dancer**  
신승민  
전)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현) M-note상입안무  
강정일  
현) 워 Danceteater대표  
신상현  
18회 전국무용제 참가작 '미친개들' 연출의 다수 연출및 안무

김수현  
현) BeTheSDa2010 대표  
허종원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현) 자유, M-note, BeTheSDa2010 단원  
김초슬  
경성대학교 졸업  
안선희  
부산대학교 졸업, 동대학원 수료, 현)자유무용단 정단원  
김동석  
현) M-note 단원

**영상디자인 Visual Design**  
문관규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라이브 연주 Music Performance**  
김정태(기타)  
부산예술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부산 제이투 실용음악원 원장  
장재희(타악)  
남산놀이마당  
박정미(보컬)  
부산예술대 재학중

# 목적 없는 여정 몸의 육체

## 肉體



1.  
시작도 끝도 없는 몸의 길.  
길에서 몸은 지금-여기의 삶과 같이 생성한다.

삶의 모든 것에 미리 주어진 답은 없다.  
단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만 있을 뿐  
삶의 여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연속선

춤-길에 던져진 몸의 목적 없는 여정 속에서  
마추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 설레게 궁금하다.

2.  
몸은 고통이다.  
그리고 동시에 기쁨이다.

몸은 나이면서 동시에 타자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타자다.  
몸의 무의식은 과거 전체와 맞닿아 있다.  
그곳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떨 때, 몸은 만남을 원하고,  
다른 몸에 스스럼없이 다가가  
접속하고 소통하고 함께하지만,  
또 어떨 때 몸은 모든 만남을 거부한다.

습관은 몸을 고착화하고  
정신은 몸에 절제를 강요한다.  
몸은 병이 난다.

하지만, 몸 그 자체는 언제나 자유다.  
자유로운 몸짓은 생명  
그 자체의 순수한 발현이다.  
이런 몸의 순수 힘을 일깨우고 싶다.  
춤과 자유 그리고 생명.

정신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몸짓

3.  
나의 모든 과거는 몸에 주름 잡혀 있다.  
이 몸을 그 자체로 드러내고 싶다.  
몸의 자유로운 사유와 새로운 몸짓-감각의 창  
내 춤-길의 목적 없는 여정은  
접힌 주름을 풀어내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기원도 목적도 없는 춤-길의 여정 속에  
새롭게 생성하는 지금-여기의 삶.

4.  
무대 위 춤꾼들의 몸은 관객과 더불어 생성한다  
내가 변화하고 나의 삶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고 온 우주가 생성한다.  
춤과 같이.



11  
2010

8:00 pm


3<sup>수</sup>

## 해운대문화회관 대극장

### YeonBunHong::


연분홍은 2001년 부산지역의 젊은 춤꾼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춤을 사랑하고 춤추기를 열망하는 춤꾼들이 형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춤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춤꾼들이 연분·홍의 주인인 자유로운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01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정기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연분·홍에서는 젊은 춤꾼들이 자신의 개성과 창작체제를 마음껏 드러내는 실험적인 출산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 모든 것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기회로 삼아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서를 춤으로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목포, 진주 등 타 지역과의 활발한 공연 및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춤판의 새로운 무게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부산시 공연예술 집중육성단체에 선정되어 3년간 다양한 공연활동을 지원받으며 춤 창작을 위한 탈춤, 무대매커니즘 워크샵,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상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본 최찬열 연출 김미현(동아방송예술대 연극과 교수) 무대감독 이주영 무대미술 황지선  
조명감독 이동진 사진 이장수 영상 정한결, 조수희 광고디자인·인쇄 페이퍼민티  
음향 김태경 홍보 및 기획 연행기획 面-얼굴 (김경희, 정경은)

주최·주관 춤패 연분 홍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공연문의 010-6711-3922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본 공연은 사랑티켓  문화이우처 참가작품입니다.

본 공연은 2010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